

오륙도 칼럼



곽득욱

옛 속담에 “삼년 가뭄은 살아도 석 달 장마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다. 장마철 큰 비는 모든 것을 쓸어가니 남아나는 것이 없어 못 살겠다는 뜻이다. 능히 공간이 간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장마철에 뒷산 일부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다. 실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나무뿌리 등의 유실물들을 주민들 힘만으로 치우기에는 엄두조

차 나지 않았다. 다행히 구청 관계자들의 발 빠른 대응과 해군장병들,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야 겨우 피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특히 안방까지 토사가 차고 들어간 집은 피해복구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벌써 2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이 있은 뒤 대문을 나서면 항상 뒷산부터 올라다본다. 물론 구청에서 사태발생면 아래쪽에 하수박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면안정화를 꾀했으나, 주민 입장에서는 일련의 트라우마 현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태가 일어났던 뒷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별 탈 없이 장마철을 넘긴 성실하다. 하지만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말뚝이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어 영 개운치가 않다.

기상청 관계자의 말처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대기불안정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했듯이, 실제로 예년과 같이 장마가 끝나는 7월 22일 이후에도 전국에 걸쳐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했다.

우리 남구에서도 7월 27일 오후 5시 11분에 1일 강수량 269.5mm, 시간당 68.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하여 부상, 입원 등의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침하, 토사유출, 담장 및 응벽 붕괴, 주택 및 상가 등의 건물 반파와 침수 등 모두 820여 건에 달하는 피해

를 입었다.

재산상의 피해만 57억8천만 원, 예상복구비용으로 273억 원이 든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피해다. 주택지 담장이나 아파트 응벽 등의 붕괴 위험으로 주민 68세대(161명)가 예문여고 강당으로 대피했는가 하면, 도로 침수로 인하여 일부 진입로가 차단되기도 했다.

구호품을 비롯하여 피해복구에 투입된 인력만 해도 구·동 직원 및 적십자사 남구지회, 해군장병, 자원봉사자 등 3,159명이고, 가능 가능한 포크레인, 양수기 등의 복구장비도 347대나 투입됐다.

더불어 재난관리기금과 특별보급금 등의 복구사업비를 시에 요청했다. 지금도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진하거나 항구적인 대책

이 필요한 곳도 남아 있다. 그만큼 피해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긴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이 평소 있었더라면 피해는 최소화됐을 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발목이나 질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바랭이를 떠올려 본다. 바랭이는 벼에 속한 한해살이풀로, 이른바 야생잡초다. 이 잡초는 땅위를 기며 장마철을 대비해 마디뻗기와 뿌리내림을 이어간다.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올수록 더욱 무성하게 퍼진다.

집중호우와 같은 이른바 ‘하늘의 심술’에도 쓸려가지 않겠다는 대비태세와 유사시의 대처방식이 경이롭다. 혹여 장마철 큰 비에 마디 하나가 뚫히도 새로운 마디를 뻗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다. 그 끈질긴 생명력에는 결코 좌절이나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인한 의지 또 또 다른 마디를 뻗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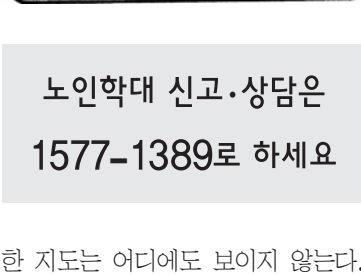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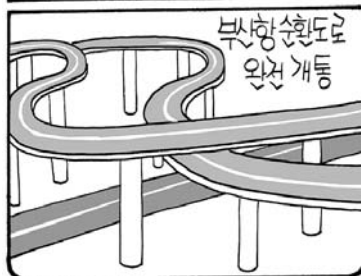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내일을 향한 희망이다. 경험상 그와 같은 희망은 이웃 간의 유대감에서 솟아난다. 피해 이전의 모습으로 점차 복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새롭게 때는 일에도 서로의 격려와 나눔은 큰 힘이 된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 지금까지 보여준 살가운 관심과 두터운 성원을 더 많이 보내자.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고생을 함께 하며, 곳곳과 피약발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리자. 그 넓은 아우름은 실의에 빠졌던 마음을 추슬러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는 일이며, 나와 내 이웃이 살고 있는 고장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문철3동·소설가

신선대

<187>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1577-1389로 하세요

선웅의 1000자 지혜

옛것과 새것

일전, 신문방송에 문장과 문맥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우리글까지 못쓰는 학생의 수가 많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부터 자주 글을 쓸 기회가 없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글까지 잊어버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옛것을 지나치게 고수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공자(孔子)의 제자 자공(子貢)이 제자와 함께 초나라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노인이 뜨거운 햇살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우물 밀바라까지 닿는 지하도를 파놓고 오르내리면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있어 자공이 물었다.

“물을 쉽게 길어 올릴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노인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자공은 지레두레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걸 모르느바 아요.

하지만 기계를 쓰면 기계에 의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커지면 편한 것만 생각하여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되며 그 마음을 잃으면 인간은 끝이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자공이 공자의 제자라고 하자 노인은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언제나 잘난 척 허풍을 떨며 세상에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놈과 한패거리이군.”

공자를 욕하는 것을 처음 본 자공은 쫓기다 시피 한동안 멍하니 걷고 있는데 제자가 그 노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아찌된 스승 공자보다 더 훌륭한 성인일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공은 여행에서 돌아와 공자에게 그 노인 이야기를 했더니 공자는 그 늙은이를 바보라고 일축해버렸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소박한 옛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기계의 편리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는 것은 계계목은 옛것에 사로잡혀 융통성이 없다는 증거이고 새롭게 살겠다는 태도가 아니야.”

노인의 생각이 옳은가 공자의 생각이 옳은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까?

번역문학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도로파손 보행자 안전 위험

대연2동 LG대리점 인근에 위치한 방앗간 바로 옆길에 지름이 10센티가 넘는 구멍이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근 한복판에 위치한 구멍 2개가 나란히 뚫려 있고 그 아래로 하수가 흐르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긴다.

특히 발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친구가 놀러와 조카와 저 친구 셋이 길가다 있었던 일이다.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은 듯 보이는 이 구멍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게다가 태풍이 지날 때마다 대연2동 신정시장골목 여기저기 도로가 깨지고 뚫린 곳도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곳을 찾아 응급 복구를 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안원아(대연2동)

주거적인 방역 절실

숲이 우거진 대연3동 장백아파트 주변에 방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모기 등의 해충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 관련 부서나 남구보건소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주거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21C 샌쥬리오피스텔 앞쪽 마을버스 정류소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운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에 지구대가 있는데도 쉽사리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들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정진욱(대연3동)

이기대 안내지도 이전 설치해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의 안내지도도 이기대 입구 쪽에 설치하면 좋겠다. 용호동에 살아서 자주 이기대공원에 산책을 가는데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나 또한 길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때 마다 난감한 경우가 자주 있다. 이제 이기대 공원은 알려진 부산의 명소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에 비해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기대입구와 오류도 선착장에 자세한 지도를 비치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엔 찾아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남구문화관광사이트에 가보니 여기에도 자세한 지도가 없다. 관광을 하는데 있어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정작 중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도로명 유래를 알려주길 바란다는 대연3동 박대곤 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평소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구신문 2011년 4월호에 남구 도로명부여 사유 계계를 시작으로 매달 9~10개 도로명을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지면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1. 8월호에 남구 전체 고유명사 도로명(46개)의 부여 사유를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도로명 유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미영>

독자의詩

시름의 먹구름 걷어내며

햇살의 이름은 삼시간에 천둥과 먹구름에 섬 기우고 쏟아 붓는 시커먼 폭풍의 이름으로 온 대지 위를 활쥔고 지나가네 파부어지는 세찬 물살아래 온거리는 강물을 이루었고 하늘의 슬픈 노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애통해 하는 소리로 대답하네 자연의 온 몸은 재색의 옷으로 같이입고 망연자실하는 슬픈 꼭조 속에 그저 그 한탄을 시름하며 한줄기의 빗줄기를 소망하네 시름의 지난간 자리 화단의 도라지꽃의 미소 속에 위로 받고 흔적의 아픔을 소리 없는 몸짓으로 따뜻하게 포용하네 육신 정박의 웃도 자랑거림의 가식이요 한탄의 물거품이려나 흰선 지게꾼의 하루는 마르는 풀과 같고 순간순간 긍정의 문에 들어가 있으며 만났날 새삼의 도약하는 힘찬 날개이려나



민경연

용호동



김경례

그동안 감만동을 비롯한 우암, 용당, 문현4동으로 이어지는 우암로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부산항 부두순환도로가 마침내 착공 14년만인 2011년 8월 5일 완전 개통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는 산업 도로로서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교통위험지역에서 그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수십 명의 인명사고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어 최악의 주거지역으로서 대형 차량의 주동행로로 사용되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노선 버스는 물론 승용차 등 소형차량은 항상 만성적인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 지역은 산업단지인지 주거단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정이었다.

비록 많이 지체는 되었지만은 그나마 감만동(8부두 교차로)과 동구 좌전동(4부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왕복 4차선 3.7km) 순환도로가 5일 개통됨에 따라 2001년 개통한 신선대부두(4부두)에 이르는 순환도로와 연결돼

전체 길이 5.7km의 부산항 부두순환도로 모든 구간이 완성된 셈이다.

1997년 착공된 부산항 부두순환도로는 북항의 컨테이너 부두에서 나오는 항만 물동량을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일부 구간이 개통된 이후 공사가 중단됐고 북항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나머지 구간의 착공이 늦어졌다.

왕복 4차선의 고가도로가 뚫리면서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부산항 부두순환도로가 마침내 착공 14년만인 2011년 8월 5일 완전 개통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입 물동량을 운송하는 산업 도로로서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교통위험지역에서 그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수십 명의 인명사고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반복되어 최악의 주거지역으로서 대형 차량의 주동행로로 사용되다 보니 얼마 되지 않는 노선 버스는 물론 승용차 등 소형차량은 항상 만성적인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 지역은 산업단지인지 주거단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정이었다.

비록 많이 지체는 되었지만은 그나마 감만동(8부두 교차로)과 동구 좌전동(4부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왕복 4차선 3.7km) 순환도로가 5일 개통됨에 따라 2001년 개통한 신선대부두(4부두)에 이르는 순환도로와 연결돼

사회복지 현장 체험수기 공모 최우수작 시상중계

드림지기의 “꿈이 있는 행복한 아이”



조영주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2009년도 한 해를 잊을 수가 없다.

동주민센터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주민복지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과 동시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범사업을 하라신다.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아동복지 모형개발 사업으로, 우리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아이들의 드림지기가 되었다.

우암·감만 지구의 저소득 아동 300명에게 복지·보육·건강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밝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이었다.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진행하였다. 전문인력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사례관리 대상아동을 마치 자신의 아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학업의 욕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학원과 학습지, 공부방을 연계하고 영양간접과 비만아동에게는 한방진료를,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과진료를, 시력약화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는 안경지원을,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는 정신보건 센터를,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멘토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며 아동의 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아이들이 밝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이었다.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진행하였다. 전문인력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사례관리 대상아동을 마치 자신의 아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학업의 욕구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학원과 학습지, 공부방을 연계하고 영양간접과 비만아동에게는 한방진료를,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과진료를, 시력약화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는 안경지원을,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는 정신보건 센터를,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멘토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며 아동의 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아이들이 밝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이었다.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진행하였다. 전문인력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사례관리 대상아동을 마치 자신의 아들,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드림아카데미와 놀토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또래 아이들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유도하였고, 수화에 관심을 보여 주 회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수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은혜와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지만, 막상 친해지고 나니 누구보다 열정이 가득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화가 재미있다고 열심히 배우던 은혜에게 그해 겨울 실력을 뽐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보고회 특별공연에 수화연양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이다.

공연 날, 공연장에 새 신발을 신고 나타난 은혜는 엄마가 사주셨다며 무척이나 좋아했다. 멘토 선생님들의 장미꽃과 포옹을 받으며 ‘거위의 꿈’을 수화로 공연했다.

중간 간주 부분에 은혜가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몇 개월간 연습한 대로 또박또박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파.티.혜.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파.티.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뽕.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가슴 뭉클한 경험을 하였으며, 은혜의 예쁜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었

다.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휴먼서비스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매일 사람을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한 행복해한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다. 그 다양함이 다수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길 바라며,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따스한 세상을 꿈꾸어 본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는 제과점에 들러서 행복한 빵을 사야겠다.

주민복지과

남구는 지난 6월20일부터 사회복지 현장 체험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이번 공모에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22건의 작품을 출품해 생생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임상자 명단> ■최우수: 조영주(드림지기의 “꿈이 있는 행복한 아이”) ■우수: 최영자(문현고개 사람들), 손영남(작은 관심과 사랑이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장려: 강가애(값진 선물), 김진희(발달이 필요한 것이 그 리운 내 어르신), 양지현(어르신들의 행복지킴이), 이명우(우물쭈물 독거노인 멘토 일지), 이명수(힘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순(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희망), 조성철(함께 하는 우리), 최영철(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최유리(C군의 행복 찾기 여행), 황명숙(아려운 현설 속에서 희망을 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자 李 福 熙 / 편집장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